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고려인(高麗人)의 주거 및 주생활*

- 재한(在韓) 고려인 이주 노동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탐색 -

Housing and Domestic Living ; An Analysis of Housing Plans for Goryo-in Immigrant Workers in Korea*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 전공

연구교수 이 영 심

교수 최 정 신

Division of Consumer& Housing Studies, Catholic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 Young Shim Lee

Professor : Jung Shin Choi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의 배경

IV. 결과해석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With increasing numbers of immigrant workers in Korea, the supply of socially and culturally acceptable housing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ate of Goryo-in housing and domestic living conditions in metropolitan areas of Korea. This study will present essential information directly relevant to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housing policy for Goryo-in in Korea. Furthermore, data collected and analyzed here will enable comparative investigation with Goryo-ins who live in Russia and Central Asia. Using ethnographic methodologies, we examined 20 Goryo-in households in relation to their usage of domestic space. The following conclusion were established; 1). The most popular L · D · K(Living · Dining · Kitchen)type consisted of kitchen plus one or two bedrooms. The majority of households lived in quarters with separated kitchen and living room areas. 2). Most households had a washing machine in the bathroom due to a lack of space, and they regarded the bathtub and the drain hole of the bathroom as very necessary. The Goryo-ins interviewed preferred quarters with separate bathroom and toilet areas, in order to allow simultaneous use. 3). Their most preferred seating style was chairs, while making Kimchi at home was not very popular. 4). All respondents took their shoes off and wore slippers at home, while also indicating a preference for designated shoes space at the entrance to the house. 5) Half of the households

Corresponding Author : Young Shim Lee, Division of Consumer& Housing Studies, Catholic University 43-1 Yockgok2-dong, Wonmi-gu, Buchen city, 420-743, Korea Tel:+82-2-2164-4836 Fax:+82-2-2164-4301 E-mail:yslee99@hanafos.com

* 본 논문은 2007년도 학술진흥재단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연구과제번호: C00074)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had a carpet or mat in the bedroom or living room, both for keeping warm and aesthetic reasons. 6). All households had modified Ondol heating system and demonstrated satisfaction with this. The majority of Goryo-ins interviewed had a different living style compared to households in Russia and Central Asia which were related to less 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in Korea.

주제어(Key Words) : 이주 노동자(immigrant workers), 고려인(Goryo-in), 주거 공간(domestic space), 기거 양식(seating style), 주거 정책(housing policy), 비교 연구(comparative investigation)

I. 서론

국제이주기구(IOM)는 1960년 이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제 이주인구가 1억 7,500만 명으로 40년 사이에 두 배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경향신문, 2007.12.).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2%에 해당되는 수이다. 재한(在韓) 외국인의 국적은 약 190여 개국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며 2050년에는 그 수가 약 91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수는 35만 명 정도이며 여기에 미등록 노동자까지 더하면 그 수는 5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출신국이 아닌 타(他)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은 국가 간의 고용의 기회와 임금의 격차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에 63만 명, 2020년에 152만 명의 노동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국내의 이주 노동자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가 들어온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농촌에서 유입되어 왔던 노동인구가 점차 감소하였고 아울러 1980년대 말에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이 사양 산업이 되면서 특히 이러한 산업의 중소기업에서의 노동력이 극심하게 부족하였던 사회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 유입의 초기 시기인 1989년 - 1991년에는 조선족(朝鮮族)과 필리핀인이 대부분이었으나 1994년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행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국내 노동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이들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며 이 중 고용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제조업이다(석현호, 정기선, 이정환, 이해경, 강수돌, 2003).

이주 노동자가 국내의 노동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20여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연구는 경제와 관련법률 분야 및 인문사회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으나 주거관련 분야의 연구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실태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주거 상황, 취업 형태, 수입,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가 시급함을 지적하였다(중앙일보, 2007). 이는 2007년 이후 우리나라가 전면적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취업 업종을 다양화하는 등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과 함께 주거에 대한 지원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조선족 이주 노동자를 그 첫 연구 대상으로 하여 중국 거주 조선족과 국내 거주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을 비교 고찰(이영심, 최정신 2007).¹⁾ 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그를 잇는 후속 연구이며 연구 대상은 구(舊)소련 지역에서 이주한 재외동포(在外同胞)인 고려인(高麗人)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말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포용 정책으로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의 방문과 취업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뿐 아니라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입국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²⁾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이주 노동자의 주거 실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이들의 현재 주거에서의 공간 사용 및 만족 정도 그리고 요구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다. 더불어 주거 이동에 따른 주거문화의 변화 혹은 지속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는 향후 재한 고려인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정책 및 행정 프로그램을 입안하는데 필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수행할 예정인 구소련 현지(現地)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 공간 및 주생활의 비교 분석을 위

1) 이 연구는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연구(2007년 1월 13일-1월 23일 수행)결과와 재한(在韓)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에 관한 연구(2007년 3월3일-4월 9일 수행)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2) 한국 법무부가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에 대하여 2005년 3월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방문 취업제는 5년간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고 1회 입국 시 최장 3년을 체류하도록 하였으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32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에 호적, 친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는 한국어 능력시험 및 추천을 통하여 방문취업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재한 고려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주거계획 요소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지역의 선정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서 고려인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중구, 종로구와 경기도의 안산, 수원, 부천 지역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하여 2007년 6월 16일-11월 1일에 수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구소련 지역 출신의 이주 노동자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은 12,834명, 러시아 출신은 11,356명이며(안산이주민센터, 2007), 이중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 노동자는 408명 그리고 러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는 259명(102명:고려인)으로 추정된다(안산시청, 2007). 서울 지역에서 고려인의 주요 거주지는 종로구와 중구이며 이들은 특히 동대문 운동장을 중심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촌을 형성하고 있다(한겨레21, 2007). 또한 수원과 부천 지역에도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서울의 종로구, 중구 그리고 안산, 부천, 수원 지역이 재한 고려인의 주거 및 주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이상의 지역을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사진 1; 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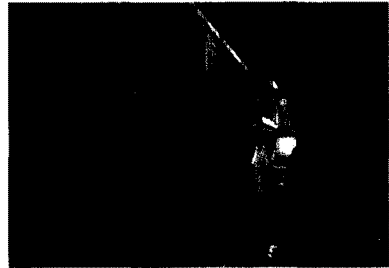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중구 장충동(8가구)과 종로구 창신동(3가구), 안산시 선부동(6가구), 수원시 매곡동(2가구), 부천시 소사동(1가구)에 거주하는 고려인 20가구를 방문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였는데 이는 주거 이동 후 주생활에서의 적응 혹은 변화를 경험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일정한 직업과 수입원이 있으며 거주한 지 2년 이상인 고려인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는 소수 사례를 심층 분석하는 일종의 질적(質的) 연구인 문화 기술적 현장연구(Ethnographic field study)³⁾의 틀을 사용하였고 질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이에 따라 각 가정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면담을 하였는데 우선 질문지의 항목



〈사진 1〉 재한 고려인 집거지역인 장충동의 다가구 주택지



〈사진 2〉 재한 고려인 집거지역인 안산의 다가구 주택 사례

에 기초하여 질문하고 연구자의 관찰에 따르는 추가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면담자의 응답과 부연 설명을 기록하였다. 또한 사진 촬영을 허가한 주택에 한하여 주택 내, 외부를 촬영하였으며 일부 주택에 대한 실측을 수행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크게 주공간 사용과 주생활 면으로 구분하였는데 주 공간 사용은 각 주택의 거실, 식사실, 부엌의 유형 그리고 각 공간의 계획과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며 주생활은 각 활동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 그리고 공간별 바닥재 및 난방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아울러 조사대상자들의 원 거주지에서의 주공간 및 주생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현재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주거 공간 유형, 부엌, 난방의 만족 정도 그리고 주택의 전반적인 만족 정도에 대한 평가는 아주 만족한다(5점)-아주 불만족하다(1점)의 5단계로 분류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III. 연구의 배경

1. 고려인 이주 노동자의 원 거주지 및 국내 거주지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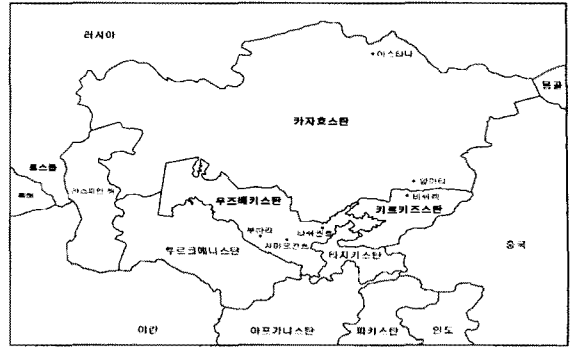
고려인은 구소련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를 이르는 말로 1800년대 이후 연해주에서 시작된 이들의 이주 역사는 현재까지 140여 년에 이른다. 한인들의 이주는 1860년 청·러 북경조약에 의해 연해주가 러시아 영토로 점유된 이후부터 시

3) 문화인류학 바탕의 문화 기술적 현장연구는 관찰과 면담을 주로 하면서 기록, 분석하고 그 결과가 다음 단계의 관찰과 면담을 끌어내는 순환적인 방법이다(이희봉, 1998).

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전에도 블라디보스톡과 우수리 지방에 한인이 도래(渡來)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그들은 봄에 왔다가 가을에 돌아가는 계절출가(季節出家)이민이었다(고승제, 1973). 1860년대에 북한 지방에 재해가 발생하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주를 하였고 당시 연해주 개발이 필요했던 러시아 정부는 이를 환영하였다. 1925년 연해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당시 연해주에는 164개의 한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1930년대 중기에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20만 여명에 달하였으며 연해주 지역의 산업이 성장하면서 한인들은 광업과 건설업 등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게 되었다(이상근, 1996). 1900년대 이후에는 일제의 한국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따라서 이 시기의 한인 이주는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그러나 1937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동년 8월에 소련과 중국이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구소련 정권은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이주를 결정하였다. 스탈린에 의한 고려인의 이주는 1937년 9월-12월 사이에 수행하였고 이 때 약 18만 여명에 이르는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지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고려인들이 희생되었으나 이들은 강한 의지로 척박한 중앙아시아의 토지를 일구고 개척하여 구소련의 농업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인구 또한 증가하여 1989년 현재 구소련 127개 민족 중 28번째로 인구가 많은 민족으로 성장, 발전하였다.⁴⁾ 그러나 1991년에 구소련은 붕괴되었고 이에 따라 발틱 3국을 제외한 12개 구소련 공화국들은 독립국가연합(CIS)의 일원으로서 신생독립국이 되었다. 독립 이후 신생독립국들은 공용어였던 러시아어 대신 자(自)민족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회교 중심의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고려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독립국가연합의 각 지역에서 비주류 민족들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러시아연방국가 통계위원회, 2004).⁵⁾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역시 최근 수년 간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고려인 유출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남혜경, 임채완, 최한우, 이원용, 심현용, 강명구, 2005)(그림 1).

고려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로 중앙아시아의 의류 도매상들이 동대문 일대의 의류 시장을 오가는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에는 2,000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상권(商團)이 많이 위축되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 출신의 고려인들이 300-500명 정도



(그림 1) 조사대상자의 원 거주지인 러시아와 CIS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중구와 종로구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집거지이다(중앙일보, 2007).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주거 지원은 산업연수생의 경우에 숙소와 식숙비용을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2007년 1월을 기하여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면서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주거는 이주 노동자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⁶⁾ 경기개발연구원(2006)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밀집 거주지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들의 정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거 점유형태는 월세가 가장 많았으며 이주 노동자들은 높은 임대료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느끼고 있었고 주택의 양적인 부족 그리고 주택 정보가 불충분한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동거인의 수가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보다 높았는데 이러한 불안정한 주거는 결국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4)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인구는 총 439,000명으로서 우즈베키스탄(183,100명)에 가장 많은 수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은 러시아(107,100명), 카자흐스탄(103,100명), 키르기스스탄(18,355명), 타지크스탄(13,431명), 투르크메니스탄(2,800명), 우크라이나(6,000명)의 순이다(남혜경, 임채완, 최한우, 이원용, 심현용, 강명구, 2005). 이 자료는 구소련의 마지막 인구센서스가 이루어진 1989년 1월12일 자료에 의거한다.

5) 1989년-2002년까지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이주한 인구는 10,975,500명이며 러시아 연방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해간 인구는 5,415,700명이다.

6) 2004년 8월부터 실시한 고용허가제는 우리 정부와 인력 수출국과의 사이에 협약(MOU)을 체결하여 정부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만이 외국인력 수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주 노동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혹은 고용주와 직접 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류 기간도 5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6년 8월말 현재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취업한 인력은 총 13만 3506명이다(재정경제부, 2006.11.07).

〈표 1〉 재한 고려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사 례	이 름	성 별	가 족 수	가 족 구 성	학 력	직 업	월 소득 (만원)	출 생 지 역	출 생 지 역 주 거 형태	현재 거 주 형태	월 세 금 수	임 차 비 용 (만원)	거 주 년 수	
1	P씨	55	여	1	단신(單身)	중졸	공장근무	110	로스톱	아파트	다가구	1	15	2년
2	S씨	46	남	1	단신(單身)	고졸	건축일	120	연해주	아파트	다가구	원룸	18	2년
3	J씨	36	남	1	단신(單身)	중졸	건축일	130	연해주	단독주택	다가구	1	20	3년
4	L씨	53	남	1	단신(單身)	중졸	건축일	120	연해주	단독주택	다가구	원룸	20	4년
5	P씨	58	여	1	단신(單身)	고졸	빵집관리	100	우즈벡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40	2년
6	I씨	23	여	1	단신(單身)	대재	통역(번역)	100	우즈벡	단독주택	고시원	원룸	21	3년
7	C씨	53	여	2	본인+시누이	중졸	공장근무	120	연해주	아파트	다가구	원룸	15	2년
8	I씨	47	여	2	부부	대졸	옷집경영	200	우즈벡	아파트	다가구	3	6,000	11년
9	J씨	58	남	2	부부	고졸	식당경영	300	연해주	단독주택	모텔	원룸	30	5년
10	K씨	33	여	2	부부	대졸	공장근무	70	우즈벡	아파트	다가구	1	20	7년
11	L씨	53	남	3	본인+딸+사위	고졸	건축일	120	우즈벡	아파트	다가구	2	24	5년
12	P씨	56	여	3	본인+아들친구부부	대졸	옷집경영	250	우즈벡	아파트	다가구	3	30	10년
13	L씨	27	여	3	부부+자녀1명	고졸	잡화점관리	200	우즈벡	아파트	아파트	3	6,500	4년
14	J씨	42	남	3	부부+자녀1명	대졸	목공업	300	연해주	단독주택	다가구	1	22	2년
15	B씨	38	여	3	본인+친구2명	대졸	교회전도사	120	우즈벡	아파트	다가구	1	10	10년
16	K씨	33	여	3	부부+자녀1명	대졸	통역(번역)	200	카자흐	아파트	다가구	2	6,000	5년
17	C씨	26	여	3	부부+자녀1명	대졸	통역(번역)	200	킬키즈	아파트	다가구	2	4,500	2년
18	M씨	51	여	4	본인+동생부부+조카	대졸	옷집관리	110	우즈벡	아파트	다가구	2	20	3년
19	K씨	34	여	4	부부+자녀2명	대졸	통역(번역)	200	카자흐	단독주택	단독주택	2	5,000	7년
20	K씨	52	여	5	부부+아들부부+손녀	고졸	식당경영	200	우즈벡	아파트	다가구	2	20	13년

주. 조사대상자의 이름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문 약자로 표기하였음.

필요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들의 다양한 주거문화를 고려한 주택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적인 면에서의 향상과 질적인 면에서의 고려는 이들에게 쾌적한 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다 이상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부가 2005년 말부터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구소련 지역에서 입국하는 고려인 동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발맞추어 이들의 주거와 주거 환경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50세-59세가 9사례, 30세-39세가 5사례 그리고 20세-29세와 40-49세가 각각 3사례였고 평균 연령은 43.7세였다. 평균 가족 수는 2.4명이었으며 가족 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와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6사례씩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10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건축(建築)관련 노동직이 5사례로 가장 많았고 식당 등의 가게를 경영하거나 통역, 번

역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4사례씩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6사례가 남자(男子)이었으며 식당을 경영하는 1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축 관련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재한 고려인의 소득정도는 월 100만원-130만원이 10사례(50.0%)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월 소득은 164만원이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2001)이 조사한 재한 이주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 99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중간 이상의 소득계층으로 파악되었다.⁷⁾ 주택 형태는 다가구 주택이 16사례였고 이 외에 아파트, 모텔, 오피스텔, 고시원 등으로 다양하였다. 재한 고려인의 집세 지불 방식은 월세인 경우가 15사례였고 전세인 경우가 5사례였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평균 비용은 23만원이었으며 이들 중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는 5사례에 불과했다. 전세인 경우 그 비용은 4,500만원-6,500만원으로 평균 5,600만원이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5사례를 제외하고 월소득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

7) 한국노동연구원(2001)이 재한 이주 노동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경우의 70% 이상이 중국 이외의 지역 출신들이었으며 이 경우 대부분 2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한달 급여는 99만원 정도였고 근무시간은 월 273시간 정도였다(박채란, 2004).

은 10-20%인 경우가 9사례(60.0%)로 가장 많았고 10% 이하가 2사례(13.3%)였으며 20% 이상인 경우도 4사례(26.7%)가 있었다. 재한 고려인 이주 노동자들의 원 거주지는 우즈베키스탄(10사례:50.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연해주로 6사례(30.0%), 카자흐스탄이 2사례(10.0%) 그리고 키르기스스탄과 로스톱(러시아)이 각각 1사례(5.0%)씩이었다.⁸⁾ 원 거주지에 서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14사례(70.0%)로 단독주택보다 많았다.

2. 주거공간 사용

1) 주거 공간의 유형 및 평가

조사대상 주택의 주거 공간 유형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 주택 중 가장 많았던 유형은 부엌과 방으로 구성된 유형으로 부엌+방1칸이 4사례(20.0%), 부엌+방2칸이 3사례(15.0%)였으며 부엌과 방이 한 곳에 있는 원룸 유형 또한 일반적이었다(6사례:30%)(그림2; 그림3). 부엌과 방1칸으로 구성된 유형은 선행 연구인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도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파악된 바 있다(이영심, 최정신 2007). 조사대상 재한 고려인의 경우 일반적인 주거 형태 이외에 고시원, 오피스텔, 모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1사례씩으로 파악되었다.⁹⁾ 조사대상 주택은 1사례 이외에는 부엌과 방의 바닥 높이와 바닥재가 동일하여 공간 이동 시 신발을 신고 벗는 번거로움이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재한 조선족 주택의 대부분이 부엌은 타일, 방은 비닐 바닥재이어서 공간 이동 시 신발을 갈아 신어야 했던 경우와 차이가 있다(이영심, 최정신, 2007). 부엌과 거실이 통합되어 있는 유형(12사례:60.0%)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만족 정도는 평균 3.3점이었고 부엌과 거실이 분리된 유형(8사례:40.0%)에 대한 만족정도는 3.9점으로 약간 더 높았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90.0%(18사례)가 부엌과 기타 공간이 분리된 유형을 선호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재한 조선족과 중국 거주 조선족 또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부엌과 기타 공간이 분리된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조선족의 경우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중국의 음식문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고려인 역시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앞으로 수행할 현지(現地)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부엌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조사대상 재한 고려인의 부엌에 대한 만족정도는 평균 3.3점으로 보통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체에서 14사례(70.0%)의 조사대상자들이 부엌 면적과 작업대가 비좁다고 언급하였고 특히 원 거주지의 경우와 비교하고 있어 현재 이

〈표 2〉 재한 고려인의 주거 공간 연결유형

		N = 20	
유형		f(%)	만족 정도
부엌분리형	부엌 + 방(1/2개)	7(35.0)	3.9점
	부엌 + 거실 + 방 2개	1(5.0)	
부엌통합형	LDK + 방(1/2/3개)	6(30.0)	3.3점
	원룸 형식	6(30.0)	
계		20(100)	

주. 원룸 형식: 원룸의 다가구 주택 뿐 아니라 고시원(1), 오피스텔(1), 모텔(1)의 경우도 포함됨.

들의 부엌에 대한 만족 정도는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엌에 대한 만족 정도는 선행 연구에서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평균 2.5점)의 경우보다 약간 더 높았다. 이는 재한 조선족이 사용하는 부엌의 대부분(94.1%)이 타일 바닥재이며 방에서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어 방과 부엌을 오가는데 불편함이 큰데 비하여 조사대상 재한 고려인 주택의 경우 대부분(19사례:95.0%)이 부엌과 방의 바닥 높이가 동일하여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¹⁰⁾(이영심, 최정신, 2007)(사진3; 사진4). 조사대상 주택의 부엌 작업대는 가스레인지, 개수대, 작업대 등의 3조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4사례(20.0%) 이외에는 대부분 가스레인지와 개수대의 2조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사례 이외에는 부엌에 모두 바닥 난방이 되어 있었으며 모두 온수가 공급되었다. 냉장고는 전체에서 17사례(85.0%)가 소유하고 있었고 취사연료는 모두 도시가스였다.¹¹⁾ 부엌에 대한 요구 사항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부엌 면적이 더 넓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는데 이 결과는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의 경우와 유사하였다.¹²⁾(이영심, 최정신, 2007). 조사대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구소련 지역의 주거 공간은 기본적으로 '잠간', '부엌간', '거실간' 등 기능 별로 분리 계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부엌 면적은 아파트의 경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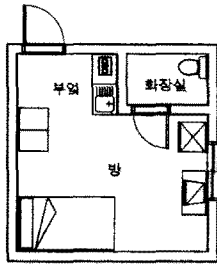
8) 출신 지역이 연해주(6사례)인 경우는 1991년 우즈베크의 독립 이후 경제 사정으로 1994년-2000년에 걸쳐 연해주로 이주한 사례로서 1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3개월(여행비자)마다 연해주를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9) 고시원, 오피스텔, 모텔에 거주하는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3년으로서 이는 이 유형이 임시 거주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의거한 것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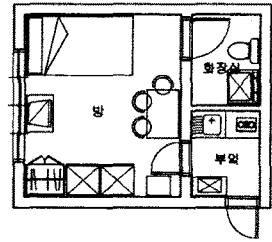
10) 조사대상 재한 고려인 주택에서 부엌이 타일 바닥재이며 방에서 안전하게 분리된 형태는 1사례였다.

11) 1사례는 집주인이 냉장고를 기본 살림도구로서 제공한 경우였다. 최근 안산 지역에는 이주 노동자의 주거가 증가하면서 수시로 이주(移住)하는 이들을 위해 침대, 장식장 뿐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을 기본 살림도구로 제공하기도 한다.

12) 3사례는 오븐(oven)에 대한 요구를 하였는데 이는 한국식(밥)과 러시아식(빵)을 혼용하는 이들의 식습관에 따라 집에서 빵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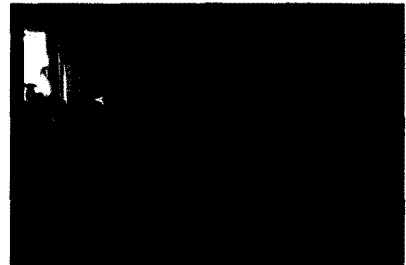
〈그림 2〉 부엌과 방이 한 곳에 있는 원룸 형식(안산 B씨택)



〈그림 3〉 부엌1칸과 방1칸의 예(안산 L씨택)



〈사진 3〉 부엌과 방이 한 곳에 있는 원룸 형식(안산 B씨택)



〈사진 4〉 부엌1칸과 방1칸으로 구성된 형식(안산 L씨택)

3.0m × 2.0m 그리고 단독주택은 그 이상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자들이 현재의 부엌 크기 그리고 부엌이 취침 공간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욕실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조사대상 재한 고려인 주택은 고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 내에 개인 욕실을 가지고 있었다. 욕실 설비는 변기와 샤워시설로 구성된 경우가 12사례(60.0%)로 가장 많았고 세면대, 변기, 샤워시설로 구성된 경우가 5사례(25.0%)였으며 욕조가 있는 경우는 2사례(10.0%)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자들이 원 거주지에서 욕조를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는 11사례(55.0%)였는데 조사대상자들의 80.0%(16사례)가 욕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욕조는 이들에게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이 원 거주지의 아파트에서도 욕조의 사용 정도가 낮았고 그 필요 정도 또한 낮았던 결과와 대조된다(이영심, 최정신 2007). 중국과 구소련의 조사대상 지역 모두 겨울에는 추운데도 불구하고 욕조에 대한 요구 정도가 다른 이들의 목욕 관습에 차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고려인이 조선족에 비하여 욕조 안에서 샤워하고 목욕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에 더 익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구소련 지역이 지리적, 정서적으로 서양에 가까우며 고려인 역시 이에 동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75.0%(15사례)가 원 거주지의 욕실 바닥에 배수구가 없었음을 언급한 한편 85.0%(17사례)가 배수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이들이 배수구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주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동화된 사례로 간주할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호주와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의 욕실 배수구의 필요 정도에 대한 결과 역시 그러한 예이다. 즉, 한국과 달리 욕실 바닥에 배수구가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호주와 캐나다의 조사대상 한인들은 배수구의 필요 정도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타(他) 지역으로 이주(移住) 후 그곳의 욕실 환경에 적응하고 동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영심,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주거 환경에 대한 적응, 동화가 특히 욕실 배수구의 사용에서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혹은 경제적인 수준 등의 사회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55.0%(11사례)가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된 유형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동시에 두 곳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4) 세탁 공간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조사대상자들 중 세탁기가 있는 경우는 16사례(80.0%)로 이들 중 11사례(68.8%)가 욕실에 세탁기를 두고 있었다(사진 5; 사진 6). 이들 중 8사례(72.7%)는 욕실 외에 적절한 공간이 없는 경우였으며 나머지 3사례는 베란다 등 공간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실에 둔 경우였다. 부엌에 둔 2사례

(12.5%) 역시 적정 공간이 없기 때문이었으며 전체에서 3사례(18.7%)는 베란다에 두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80.0%(16사례)가 원 거주지에서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세탁기가 없었던 1사례 외에는 모두 욕실에서 세탁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자들과의 면담 결과 구소련 지역에는 아파트의 베란다에 수도시설이 없으며 따라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욕실에 세탁기를 두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65.0%(13사례)가 세탁기의 적정 장소로 욕실을 든 것은 이러한 관습화된 주생활이 배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베란다에 세탁기를 둔 조사대상자들(3사례:18.8%)은 모두 베란다를 가장 적절한 장소로 언급함으로써 주거계획에 따라 주생활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 중 손빨래를 하는 경우는 13사례(65.0%)로 그 장소는 모두 욕실이었고 빨래 삶기는 전체에서 3사례(15.0%)가 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 대부분이 손빨래를 하였고 47.1%가 빨래 삶기를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가 재한 고려인 이주 노동자에 비해 손빨래의 비율이 높은 것은 세탁기의 보유 비율이 64.7%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기도 하나 조선족 조사대상자의 58.8%가 부엌에서 세면과 세탁 등을 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빨래 삶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은 관습의 차이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경우 대부분 세탁기를 욕실에 두고 있고 욕실을 가장 적절한 세탁 공간으로 인식하는 점은 조사대상 재한 고려인 이



〈사진 5〉 욕실의 협소함으로 마루에 세탁기 둔 사례(장충동 L씨택)



〈사진 6〉 욕실에 세탁기를 둔 사례(안산 L씨택)

〈표 3〉 주공간 관련 내용의 거주지별 변화 N = 20

지역별 항목별	원 거주지	현재 주거	희망 주거
부엌·거실 통합유무	분리(100.0%)	통합(60.0%)	분리(90.0%)
욕조유무	있음(55.0%)	없음(90.0%)	요구(80.0%)
배수구 유무	없음(70.0%)	있음(100.0%)	요구(85.0%)
세탁기 사용장소	욕실(100.0%)	욕실(68.8%)	욕실(65.0%)

주 노동자들의 경우와 같았다(이영심, 최정신, 2007).

이상과 같이 파악된 조사대상자들의 주공간 관련 내용을 각 항목별로 원 거주지의 유형과 현재 유형 그리고 희망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표 3〉에 정리하였다.

3. 주생활

1) 주생활 내용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¹³⁾

조사대상자들 중 원룸(6사례) 혹은 부엌1칸 + 방 1칸(4사례)의 유형에 거주하는 경우가 10사례(50.0%)¹⁴⁾로 이들의 평균 거주년수는 3년이었으며 이들 중 6사례(60.0%)가 여행 비자로 3개월마다 한국과 원 거주지를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는 거실과 방으로 구성된 유형(LDK + 방1, 2, 3개:6사례)에 거주하는 경우 평균 거주년수가 7년인 것과 차이가 있다.¹⁵⁾ 그러나 거주 년수에 관계없이 전체에서 11사례(55.0%)가 한국에서의 영구 거주를 희망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 거주가 개인 경제의 향상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원 거주지에서 거실과 평균 방 2개 이상의 아파트 혹은 단독주택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현재 주거에 대한 만족 정도는 평균 4.0점으로 높았는데 이는 현재의 주거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된 시간동안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주생활 내용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는 다음과 같았다(표 4). 조사대상 재한 고려인들은 침대에서 취침하는 경우가 10사례(55.6%)였으며 바닥에서 요를 깔고 이불

13) 조사대상자들의 30.0%(6사례)가 원룸에, 20.0%(4사례)가 방1칸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거실, 침실 등 공간별 주생활 내용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주생활 내용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만을 분석하였다.

14) 원룸 형식에는 고시원(1사례)과 모텔(1사례), 오피스텔(1사례)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15) 거실+방1,2,3개 형식에 거주하는 6사례 중 4사례는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로 다른 사례에 비하여 생활 면에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을 덮는 좌식이 7사례(38.9%) 그리고 침대와 요를 겸용하는 경우가 1사례(5.5%)였다(사진 7; 사진 8). 조사대상자들 모두 출신 지역에서 침대를 사용하는 생활에 익숙하였으며 현재 좌식으로 취침하는 7사례는 모두 주택이 협소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침대를 사용해 왔으므로 현재의 좌식 취침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대신 바닥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평가하는 등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었으며 이는 거의 모든 조사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들에 대한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식사 시에 식탁을 사용하는 경우가 6사례(33.3%)였고 식탁 대용으로 탁자를 사용해 의자 혹은 침대에 앉아서 먹는 경우가 5사례(27.8%) 그리고 교자상을 사용해 바닥에 앉는 경우가 7사례(38.9%)였다. 즉, 식탁과 탁자를 사용하는 입식이 11사례(61.1%)로 이들의 식사는 입식 위주로 파악되었는데 조사대상자들 모두 원 거주지에서 식탁을 사용했던 것에 비추어 입식 위주의 식사 관습이 매우 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의 취침과 식사가 모두 좌식이었던 결과와 차이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통적으로 입식 문화권에 속하며 조선족과 고려인은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오랫동안 중국과 러시아 지배 문화권 아래에서 생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거양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지배 문화권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전통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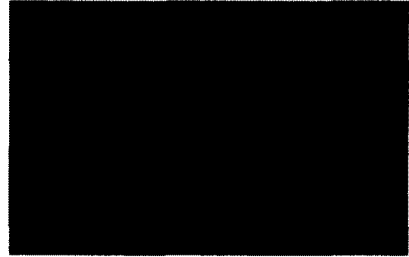
한편, 화장하기(10사례:55.6%)와 독서(9사례:50.0%)등은

〈표 4〉 주생활 내용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

N = 18

주생활내용	기거양식	입식(%)	좌식(%)	겸용(%)
취침(가족)		10(55.6)	7(38.9)	1(5.5)
취침(손님)		2(14.3)	7(50.0)	5(35.7)
가족식사		11(61.1)	7(38.9)	.
손님접대(식사)		8(44.4)	8(44.4)	2(11.2)
가족단란(TV시청)		7(46.7)	5(33.3)	3(20.0)
화장		10(66.7)	5(33.3)	.
재봉		2(66.7)	1(33.3)	.
독서		9(64.3)	4(28.6)	1(7.1)
가계부정리		4(40.0)	5(50.0)	1(10.0)
다림질		5(45.5)	6(54.5)	.
손빨래		3(23.1)	10(76.9)	.
김치담그기(배추씻기)		4(100.0)	.	.
김치담그기(버무리기)		2(50.0)	2(50.0)	.
야채다듬기		15(100.0)	.	.

주, 모델과 고시원은 사례에서 제외하였음.



〈사진 7〉 입식 취침과 좌식 식사를 하는 예(안산 L씨택)



〈사진 8〉 좌식 생활을 위주로 하는 예(부천 S씨택)

입식 위주였으며 손님접대와 가족단란 그리고 다림질 등은 입식과 좌식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주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좌식의 비율이 높았던 항목은 손님 취침과 욕실 바닥에서의 손빨래(10사례:55.6%)였다. 침대를 사용하는 입식 취침에 익숙한 이들이 손님 취침을 좌식으로 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의거한 것으로써 이곳의 생활에 적응한 기거양식이라 할 수 있으며 양말, 속옷 등을 욕실 바닥에서 손빨래하는 것 역시 조사대상자의 75.0%(15사례)가 원 거주지의 욕실 바닥에 배수구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역시 이곳에서 적응한 기거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이 집에서 김치를 담그는 경우는 4사례(22.2%)에 불과하였고 구입하거나 주변에서 얻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의 58.8%가 스스로 담가 먹었던 결과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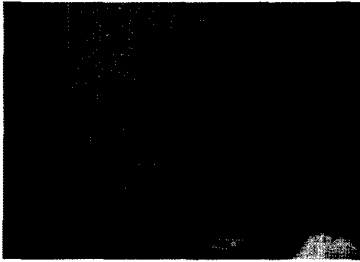
2) 공간 별 바닥재의 구성

조사대상 재한 고려인 주택의 바닥재 구성은 (표 5)와 같다. 조사대상 재한 고려인 주택의 침실과 거실, 부엌의 바닥재는 모두 비닐장판이었고 비닐장판에 카펫(carpet) 혹은 카펫 대용의 깔개를 깔 경우 10사례(50.0%)였으며 벽에 깔개를 건 경우가 1사례 있었다¹⁶⁾(사진 9; 사진 10). 선행 연

16) 재한 고려인들은 바닥에 부분 카펫을 깔거나(4사례) 두꺼운 천 혹은 러그(rug) 등으로 깔개를 만들었으며(6사례) 요로 사용하는 두꺼운 천을 벽에 걸기도 하였다(1사례).



〈사진 9〉 바닥에 발라스 대응의 깔개를 깐 모습(창신동 B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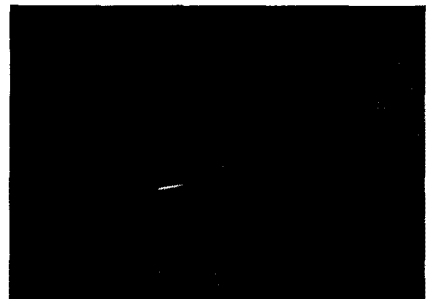
〈사진 10〉 벽에 까보르 대응의 깔개를 건 모습(장충동 L씨택)

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출신 지역인 구소련 지역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카펫을 바닥에 깔거나(발라스), 벽에 거는 것(까보르)이 일상적임을 보고한 바 있다(이영심, 조재순, 2004; 이영심, 이상해, 2004). ‘발라스’는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며 ‘까보르’는 벽을 통해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고 방음(防音)과 장식 그리고 여름에는 방서(防暑)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재는 조사대상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응해야 하는 주거 환경의 일부이다. 조사대상자들이 카펫이나 깔개를 바닥에 깔거나 벽에 거는 것 등은 이미 형성된 주거 환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문화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카펫 혹은 깔개를 바닥에 깐 이유로 “따뜻하기 때문이다”와 “습관이기 때문이다”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카펫 혹은 깔개 사용은 관습을 지속하는 한 예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주택의 침실 바닥재가 모두 비닐 장판인 것은 선행 연구에서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 주택의 침실 바닥재가 모두 비닐 장판이었던 결과(이영심, 최정신, 2007)와 같다. 조사대상

재한 고려인들이 여기에 카펫 혹은 깔개를 깔고 생활하는 것은 두 연구 대상의 주거문화가 다름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들 중 6사례(30.0%)가 원 거주지에서 거실과 침실에 나무 바닥재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85.0%(17사례)는 나무 바닥재를 가장 이상적으로 평가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나무 바닥재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경우에도 그 선호정도가 높게 파악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7).

3) 실내에서의 신발 착탈과 현관 계획

조사대상 재한 고려인들은 모두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였고 신발 수납을 위하여 박스(7사례:35.0%) 혹은 선반 형태(11사례:55.0%)의 신발장을 갖추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 등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는 현관에 신발 착탈을 위한 단차를 별도로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영심, 조재순, 2004; 이영심, 이상해, 2004).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원 거주지에서 이 같은 현관 계획에 대하여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신발 착탈을 위한 단차가 “있는 것이 좋다”가 10사례(50.0%), “없는 것이 좋다”가 3사례(15.0%), “아무래도 상관없다”가 7사례(35.0%)로 파악되어 주거 이동에 따른 주생활에서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 결



〈사진 11〉 바닥 깔개를 둔 실내에서 슬리퍼를 착용한 모습(안산 B씨택)



〈사진 12〉 현관을 깔개로 덮고 슬리퍼를 구비한 모습(수원 M씨택)

〈표 5〉 공간별 바닥재의 구성

바닥재료	공간별 f(%)	N = 20		
		거실 f(%)	침실 f(%)	부엌 f(%)
비닐+카펫(깔개)	7(100)	8(40.0)	.	.
비닐장판	.	12(60.0)	19(95.0)	.
타일	.	.	1(5.0)	20(100)
계	7(100)	20(100)	20(100)	20(100)

과는 선행 연구에서 신발 착탈을 위한 단차가 없는 중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경우 현관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지 않았고 재한 조선족 역시 신발 착탈용 단차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았던 결과와 유사점이 있다(이영심, 최정신, 2007).

한편 조사대상자들 중 13사례(65.0%)가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19사례:95.0%)이 원 거주지에서 항상 슬리퍼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⁷⁾(사진 11; 사진 12). 원 거주지에서 슬리퍼를 착용한 이유는 라디에타 난방을 사용하므로 바닥이 항상 차기 때문이었는데 이곳에서 슬리퍼를 착용하는 이유는 난방을 하지 않을 때 바닥이 찬 이유 외에도 이들의 언급대로 어느 정도는 습관적인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슬리퍼 착용은 이곳에서 지속되는 관습으로 분석되었다.

4) 난방방식의 종류와 평가

조사대상 재한 고려인 주택의 난방방식은 모두 가스를 사용하는 온수바닥 난방방식이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난방 정도에 대하여 모두 만족하였으며 특히 개인이 난방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평가하였다.¹⁸⁾ 조사대상자들 중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3사례(15.0%)였다.¹⁹⁾ 조사대상 재한 고려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난방방식은 13사례(65.0%)가 온수바닥 난방이였으며 5사례(25.0%)는 라디에타 난방이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모두 라디에타 난방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수바닥 난방을 선호하는 것은 원 거주지에서 전통 구들을 사용했던 경험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었다.²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들의 바닥 난방에 대한 선호는 여러 세대(世代)를 거치면서 자리 잡은 관습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주생활에서의 경험이 타(他) 주거문화에 대한 동화를 강화시키는 예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중국 거주 조선족과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의 이상적인 난방 방식 역시 온수바닥 난방이었던 결과(이영심, 최정신, 2007)는 이들이 새로운 주거 환경에 적응하는데 바닥 난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바닥 난방이 어느 지역에서나 보편적인 난방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5) 기타 주거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 재한 고려인들의 주거비용은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등에 관한 것으로 한달 평균 약 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담 정도는 3.5점으로 보통이였다. 그러나 대부분(15사례:75.0%)의 조사대상 고려인들이 한 달에 평균 약 24만원을 월세로 지불하고 있어 총 생활비용에 대한 부담

〈표 6〉 주거 이주에 따른 주거문화 요소의 변화

변화 정도	지속	동화	동화의 가능성
주거문화 요소	지속	동화	동화의 가능성
부엌의 분리·통합	분리 선호	.	.
세탁기 사용장소	욕실 선호	.	베란다 사용에 의한 변화 가능성 있음
배수구 유무	.	있는것 선호	.
욕조 유무	있는것 선호	.	.
기거 양식	입식 선호	.	.
난방 방식	.	바닥난방 선호	.
슬리퍼사용	사용 선호	.	.
바닥깔개사용	사용 선호	.	.
현관단차 유무	.	있는것 선호	.

은 클 것으로 사료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현재의 주거에서 평균 5.1년을 거주했으며 평균 이주 횟수는 2.2번이었는데 주된 이주 이유는 주거가 습(濕)하고 결로가 있는 것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주택을 얻을 때 방의 크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²¹⁾ 거실(9사례:45.0%)을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거실이 가족을 위한 공간 그리고 손님 접대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었는데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손님 접대를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주택을 지을 때 그리고 주택을 고를 때 특정 방향을 선호하기 보다는 주택에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상과 같이 파악된 조사대상자들의 주생활 내용에서 이주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주거문화 요소와 이곳의 주거문화에 동화된 요소 그리고 앞으로 동화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 등을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표 6〉에 정리하였다.

17)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보통 현관에 슬리퍼를 여러 켤레 구비해 두고 손님이 오면 권하는데 이는 손님을 '접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8) 러시아와 CIS 국가들의 아파트 난방은 중앙난방방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형식이다.
 19) 전기장판은 어린 자녀를 위해, 침대에서 따뜻하게 자기 위해 그리고 함께 자는 러시아인 친구가 바닥 난방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바닥 난방 대신 사용하는 경우였다.
 20) 구들이 없는 지역으로 알려진 러시아 로스토프에서 거주한 1사례를 제외하고 조사대상자 모두 출신 지역에서 전통 구들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5사례(26.3%)는 직접 구들을 시공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21) 조사대상 재한 고려인들은 주택 선택 시 "칸들이 크다"를 우선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구소련 지역의 주택 계획이 기능 별로 각 실을 분리하는 형식에 의거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시와 안산시, 수원시, 부천시 등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이주 노동자 20가구의 주거 및 주생활을 조사하여 이들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주거문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주택은 부엌과 방으로 구성된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부엌과 거실이 통합되어 있는 유형이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만족 정도는 보통이었다. 대부분(90.0%)의 조사대상자들이 부엌과 기타 공간이 분리된 유형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각 공간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계획하는 구소련 지역의 주택계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은 욕실에서 욕조의 필요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원 거주지에 거주할 때에도 반 정도가 욕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욕조에 몸을 담궈 목욕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외에 욕실 바닥에 배수구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원 거주지의 주택계획 그리고 서양식의 기저 양식에 익숙한 것 등의 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현재 세탁기를 두고 사용하는 곳은 욕실이 가장 많았으며 세탁기를 둘 이상적인 장소로도 욕실을 들었는데 이는 아파트의 베란다에 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원 거주지의 주택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서 베란다에 세탁기를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세탁기 사용 장소는 주택계획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요소로 파악되었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주생활은 대부분 침대와 식탁을 사용하는 것 등 입식 위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좌식은 손팔대와 손님 취침에서 일부 볼 수 있었는데 현재 취침과 식사를 좌식으로 하는 것은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었다. 즉, 이들의 기저양식은 원 거주지에서의 관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은 같은 입식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에 비하여 더 강한 입식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조사대상자들 중 반 수 정도가 카펫 혹은 그를 대신하는 깔개를 바닥에 깔아두고 있었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원 거주지에서는 전통적인 주거문화 요소에 속하는 것이다. 원 거주지에서 바닥에 카펫 혹은 깔개를 사용하는 목적은 라디에타 난방의 사용으로 항상 차가운 바닥을 보온하고 장식을 하기 위한 것인데 바닥 난방을 사용하는 이곳에서도 이를 지속하는 것은 보온의 목적 이외에 일정 부분은 관습적인 요소이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실내에서 슬리퍼를 착용하는 행위 역시 주거 이동과 함께 관습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다섯째, 조사대상자들의 원 거주

지에서의 난방은 모두 라디에타 난방이었으나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온수바닥 난방에 만족하고 있으며 또 이를 가장 이상적인 난방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등 난방 방식의 변화에 적응하고 동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외에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한 후 이곳의 주거문화에 동화된 예는 욕실 바닥의 배수구에 대한 요구와 현관에서의 신발 착탈을 위한 단차를 필요로 하는 것 등에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 재한 고려인 이주 노동자들은 원 거주지에서 독립된 부엌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욕조를 사용하였으며 입식 위주로 생활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주생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결과 재한 고려인 이주 노동자의 주생활은 원 거주지에서의 관습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과 주거 이동을 계기로 현재의 주거문화에 동화된 부분 등이 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수행할 구소련 현지에서 거주하는 고려인의 주거 및 주생활과 비교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재한 고려인 이주 노동자의 주거계획을 위한 요소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2006). 외국인근로자 정주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06-11.
- 경향신문(2006.12.11). '동아시아 여성 이주와 한국 사회' 보도자료.
- 고승제(1973). **한국이민사연구**. 서울: 장문각.
- 남혜경, 임채완, 최한우, 이원용, 심현용, 강명구(2005). **고려인 인구 이동과 경제환경**. 경기도: 집문당.
- 박채란(2004). **국경없는 마을**. 경기도: 서해문집.
- 석현호, 정기선, 이정환, 이해경, 강수돌(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경기도: 지식마당.
- 안산시청 복지국 자료 <안산시 외국인 현황> 2007. 4.30.
- 이상근(1996). **한인 노령이주사 연구**. 서울: 탐구당.
- 이영심(2008). 해외거주 한인의 주공간 사용 및 주생활 분석을 통해 본 주거문화의 비교 고찰 - 호주(Australia)와 캐나다(Canada)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46(1), 47-61.
- 이영심, 이상해(2004).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9), 1-18.
- 이영심, 조재순(2004). 러시아 거주 고려인의 주거에 관한 연구 -연해주(Yunhaju;沿海州)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15(1), 51-62.

이영심, 최정신(2007). 재한(在韓) 조선족(朝鮮族)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 계획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5(9), 15-26.

이희봉(1998). 재미 교포 주거 건축을 통한 사용자 문화 현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1), 103-114.

중앙일보(2007.7.8 제17호 10면). '서울 속 외국인 마을 10곳 심층해부'. 보도자료.

한겨레 21(2007.10.2 제678호 108-116면). '이주민 100만 시대, 아름다운 모자이크' 보도자료.

<http://www.migrant.or.kr/new/> 안산이주민센터 <이주민 100만시대 중국이 최다> 2007.1.28.

<http://www.mofe.go.kr/> 재정경제부 경제통뉴스 <비전 2030-외국인근로자법 · 인권차별 더 이상 없다> 2006.11.7

접 수 일 : 2008년 1월 31일

1차 심사시작일 : 2008년 2월 12일

1차 심사완료일 : 2008년 3월 12일

게 재 확 정 일 : 2008년 4월 7일